

연중 제 23 주일

기도서 430 년

제 1 독서 : 이 사 35, 4-7a
 제 2 독서 : 야 고 2, 1-5
 복 음 : 마 르 7, 31-37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 목 국
 인 세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20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유 장 훈 신부

오늘은 천주교 한국전래 200주년 기념행사를 보다 뜻있게 준비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입니다.

1980년 11월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본 사업 방향을 정신운동, 사목회의, 기념행사, 기념사업으로 결정하고 이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국 기구 조직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족복음화”라는 대 목표아래 선교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살펴보면 순교자 시성 시복, 교황성하 영접과 신앙대회, 전국 사목회의, 교회사 자료 정리, 통일 성가집 및 성서 번역 작업 등입니다.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목회의는 교회쇄신을 위해 12개 의제를 확정하고 각 의제마다 전문위원이 선정되어 조사 연구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의안작성이 완료되면 내년에 교구단위 사목회의를 거쳐 1984년에는 교황님을 모시고 전국 사목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구의 상황은 주교님을 정점으로 전체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된 200주년 전주교구 기구가 확정되었고, 교구내 순교자 시성 시복, 교구사 편찬, 성지개발, 피정의 집 건립 뿐 아니라 이곳 전주에서도 교황님을 모시고 신앙대회를 가져보겠다는 포부아래 2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오늘에 되새기고 오래 오래 명심하기 위함이 참된 기념이라 할진대 우리가 마련코자 하는 200주년 기념행사들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허황된 행사로 전락되지 말아야 하겠으며, 교회 일부층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 제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속에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작오를 다짐하는 내적쇄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운운해 오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정신은 차제에 이땅에서 심화되어 실현되며, 한국교회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빛나는 전통이 계승 발전되고 보다 투명한 복음정신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제시될 때 200주년 기념의 참 뜻이 있을 것입니다.

200주년을 맞이하게 될 1984년은 우리 교회사 뿐 아니라 민족사에 빛날 “은총의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파견된 자의 소명을 자각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이에게 해방을 알리며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해야 하겠습니다.”(루가 4, 18)

(가톨릭 센타 편집)



동참하는 일이 지금 필요하다

검은 것을 노랗다고 말하는 사람은 색맹이다. 흰 것을 회색이라고 말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교통 신호등의 색깔을 우리는 빨강고 노랑고 파랑다고 말한다. 하지만 빨라색은 없다. 엄밀하게 말해서 초록색이다. 그것을 어른들은 무심하게 보아넘기지만 아이들은 그게 아니다.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 아마 이점이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일 것이다. 세속에 찌든 어른들은 그게 그것이라고 그냥 넘어가지만, 아이들은 사실대로 말한다. 그래서 별거 벗은 임금님더러는 벗었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요새는 당연한 일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진다. 물건을 찾아주는 운전기사의 행위는 마땅한 일인데도, 그런 사람을 표창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리와 부정이 판을 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되다보니 우습게 되고 말았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대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순교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과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댓가가 현실에서는 죽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진리를 지켰다. 또 그렇게 삶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말 씀을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추앙하는 순교자들인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교회에로의 발걸음을 막는 박해는 없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는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더러 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일이 순교자의 열을 기리는 일이다. 나아가서 그들을 도우는(同參) 일이 <가장 보잘 것 없는 하나>에게 베푸는 일이다. (마태 25장)

복자성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

숲 정 이 산책



교회의 새신을 위한 사목회의

200주년은 한국교회를 위한 새신의 제기이다. 교회의 새신을 위해 사목회의가 현재 준비중에 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

전국 사목회의는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이미 2백주년 기념회의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2백주년 사목회의의 의안 준비위원회로 바꿈으로써 그 전국 사목회의는 제1단계 준비에서 제2단계로 옮겨져 지금 의안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사목회의의 준비 및 개최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단계 (81. 1~12)는 사목회의의 기본방향과 의제를 선정하므로써 그 단계를 끝냈다.

제2단계 (82. 1~12)는 의안준비와 아울러 전국 사목회의의 본회의 및 교구회의의 운영세칙과 의사진행 규정을 준비한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안준비에만 치중하고 그 운영 세칙과 의사진행 규정의 준비는 전혀 생각않고 있는데 조속히 그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 구성하여 작업착수를 해야 할 것이다.

제3단계 (83. 1~8)는 각 교구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교구 사목협의회를 기간으로 하여 확대 조직하여 적정선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교구 사목회의를 개최하며 의안을 구체적으로 교구 및 한국교회의 실정에 맞게 토의 심의한다. 한편 이 단계에 전국 사목회의에 파견할 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제4단계 (83. 9~84. 5)는 교구의 대표와 주교회의가 임명한 인사로 구성되는 대의원으로 전국 사목회의를 개최한다. 그 회의의 진행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5단계 (84. 5~10)는 전국 사목회의가 토의 결의한 사상에 대하여 교권적 결정이 필요한 것은 한국 공의회 의 절차를 거치든가 아니면 주교회의의 합의 결정으로 선포한다. 그러나 로마 성좌의 인준이 필요한 것은 그 수속을 취한다.

아름은 전국 사목회의는 사목회의라는 그 성격에서 볼 때 결코 성직위계 중심의 회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목회의는 사목적으로나 선교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반 신도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들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활동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국 사목회의는 참가자 모두가 동등한 대의회원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교회의는 이 회의의 협의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야 할 것이다.

2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호소문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9월 5일은 20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제정된 주일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984년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교회의 새신과 성화를 위해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집철된 지나온 2세기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미래의 복음선포를 위해 하느님의 참 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이미 각종 기념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땅에 펼쳐진 하느님의 영광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이 나라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한 사목적 지침을 검토하면서 각종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로 한국 순교복자 시성, 교황 성하 영접과 신앙대회, 전국 사목회의, 교회사 자료정리, 통일 성가집, 성서 및 전례서 편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방대한 작업을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 역사적인 큰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기념사업을 위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어려운 시대적 여건에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불과 1년 남짓하게 남겨놓고 이 대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대사를 위하여 유용히 쓰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의 기도와 정성된 헌금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1982년 9월 5일 200주년 기념주일

20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 윤 공희 대주교

9월은 복자성월

순교정신 높이 기려 새롭게 하자!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으로 기증함

보 석 장
군산경찰서 전복은행 앞
전화 ⑥ 6603
한 철 재(비오)

□ 회소식
독사범 물린 사람
백말백중(五代歌)
전문치료 단시간 완쾌
연락처-전주시 전미동 1가 474번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정미소 뒷집
전화 5-3544
송 준의(발라바)

CS
P B

의료효과의 선구자! 神秘食品, 土龍
(※ 수도권 등록상표를 확인하세요)

W. B. S <肝(간)·胃(위), 癌(암)에 특효>
성 모 토 龍 썬 타
(蟹 베네딕도 수도권 제조)

- 이리 명보여관앞 ⑧253
- 군산 팔마분수대앞 ④4340
- 전주 호남약국 2층 ⑥3257
- 정읍 전화국 앞 8058
- 본점 전주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⑧091 김미카엘



□ 교구 사제총회 개최

새 교구장 취임후 처음으로 교구 사제단은 지난 30일 전체모임(총회)을 갖고 교구의 새로운 사목행정과 기구조직 개편 등 당면과제와 현안문제들을 토의,대체를 수립했다.

본 모임에서 사제단은 박 주교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의 교구행정과 사목 및 신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새 「사제평의회」를 구성, 인준을 받았고, 아울러 교구장을 대리하여 제 사무행정과 관리를 맡아 주관할 총대리 신부를 선정,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선정된 사제평의원과 총대리 임명은 추후 별도 발표할 것임).

또한 교구 사무처 기구확대 증설안(교육국, 홍보국 신설) 및 기타 건의안들도 함께 신중히 다뤄졌는데, 이제 곧 개최하게 될 사제평의회를 거쳐 모두 확정, 시행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사목관계 실무자 연석회의 전주에서 열려

지난 8월 24~25일 전주 교구청에서는 각 교구 사목관계 실무자(사목국, 교육국, 홍보국, 센터, 교육원 담당신부) 17명이 자리를 함께, 현대 교회사목과 시국에 대한 제 현안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숙의하고, 교회의 방향정립을 위한 대책과 건의문을 주교단에 올렸다.

특히 전 실무진은 이 시대 양심의 최후 보루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수를 주신 한 사제가 처벌되고, 자수를 결행한 의로운 학생들이 극형을 받는 법 집행의 모순과 비인도적 고문자행의 부당제도 앞에 교회의 공식적인 태도 표명 및 교서(敎書)를 통한 정확한 가르침이 있기를 열망했다. 그리고 200주년을 향한 근본적인 대책과 조직정비 및 기타 사목실무상의 개선 방안 등을 토의, 모색했다.

□ 성체수녀원에 사제관과 피정의 집 마련

지난 8월 20일 성체수녀원에서는 독일 윤에릭 신부님의 도움으로 지은 사제관(총 100평, 공사비 4,800만원)과 수녀들을 위한 피정의 집인 「성 요한의 집」(총 111평, 공사비 5,200만원) 낙성식과 함께 박주교님 환영식 및 윤신부님(본 교구로 입적 예정)은 경 축하식이 성대하게 베풀어졌는데,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커다란 감사와 수녀원의 보다 큰 발전있기를 축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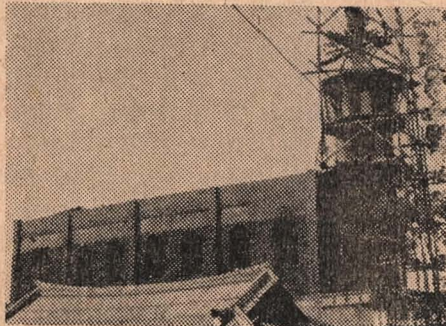
□ 원평 · 장계본당에 성모성심 수녀회 진출

지난 7월 세인의 경탄속에 새 성당을 신축 봉헌해 회제를 낭던 원평본당과 교구 유일의 부속병원을 갖추고 있는 장계본당에 성모성심 수녀회 수녀님들이 9월 3일부터 새로 진출, 지역 선교와 진로를 맡게 되었다. 장계에는 백 글로리아, 박 비아, 이 아녜스 수녀님이, 원평에는 이 요한, 김 안젤라 수녀님이 부임, 봉사하게 될 것 같다. 본당과 수녀원의 발전있기를 함께 빌어드린다.

◎ 관촌공소 성전건립에 협조를!

임실본당(주임 조 정오 신부)에 속해 있는 관촌공소(신자수 180명, 44세대)는 자력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지 6개월만에 자금난으로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생계를 꾸리기에에도 어려운 교우들이었지만 오직 주님의 전당(지상 2층) 하나를 마련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그러나 모두 너무도 빈약한 신자들만의 뜻이라 완공을 꿈꾸면서도 이양 힘에 겨워 서로 안타까운 마음만 되새기며 주님께 위탁할 뿐이라고 도움을 호소해 왔다. 본당에서는 레지오 회합(4개 브레시디움)을 통해 성전건립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중·고생들은 새벽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각고로 무릅쓰고 성전건립에 헌신하는 관촌공소 신자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고마운 교형자매님들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성원을 빈다. (위 사진은 중단상태의 관촌공소)



요심이 (474)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칙본(제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째즈 · 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각 본당 전자오케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①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앙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대성 체육사

츄리닝 운동복 운동기구 (미싱사 구합니다)

전화 2186

완주군 삼매읍 우시장 옆 고혈기(도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6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3층
2. 순창 동계공소 축성식: 7일<화> 오후 2시, 주례-박 주교님
3. 현대의 영성생활 세미나: 8일<수>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가톨릭 센터
대상-성직자·수도자, 강사-안드레아 가스팔리노 신부님(예수의 작은 자매회 창설자)
4. 사제 평의회 첫 모임: 9월 9일<목> 오전 10시
5. M.E. 소개의 밤: 11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
6. 4지구 주일학교 성가 합창경연대회: 26일, 지정곡-어린이 미사책 237번 아름다운 장미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훈
보좌 신부 박인철
사도 회장 김인철

- ※ 성경읽기: 미가 5장, 루카 6장
1. 사도회 상임위원회: 4일 오후 7시 30분 사도회회의실
 2. 병자방문: 7일 화요일, 환자 모시고 계신 분 사무실에 말씀하세요
 3. 중학생 교리: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교리에 참석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4. 축! 영세: 12일 10시 30분 미사-이리대, 복자반 영세식
 5. 중학생 성지순례: 26일, 장소-보라리내, 회비-3,500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706, 866원 교무금: 777, 1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이홍
사도 회장 이홍재

1. 200주년 기념주일: 지난주에 가져가신 헌금봉투 정성껏 봉헌합니다
 2.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후,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후,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4. 금주의 성경읽기: 제2경전에-토비트 전체
 5.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
 6. 전모임: 매주<토> 오후 5시, 미사-매주<일> 오전 9시
 7. 대학생 모임: 매주<금>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34, 845원 교무금: 335, 0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양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은 200주년 선교주일입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맞으며 특별헌금 있습니다
 2. 사도회 월례회의: 빠짐없이 참여 바람(긴급 안전)
 3. 주일학교 교사 이동
전회장-박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신회장-정경숙, 총무-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4. 주일학교 개학: 오늘부터, 가정의 귀염둥이 교리반으로 부모님께서 꼭 보내주세요
교리 2시, 미사 3시에 있습니다
 5. 예비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에 있으니 1세대 1인 꼭 인도 봉헌합니다
 6.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의: 다음주 각 썬데이 다음 간부님을 꼭 참석하세요
 7. 반석회 월례회의: 다음주, 뜻이 있는 분은 공식미사후 1층 회의실로 문의바람 '27세 이상 남자분'에 한함
 8. 애령주일: 다음주 먼저가신 선영들을 기억하고 미사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537, 530원

(복자)

전화 ⑥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 9월은 복자성월: 매 미사후 공동성월 바칩니다
1. 복자부녀회: 6일(내일) 어머니 미사후
 2.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선교 200주년을 위한 헌금: 오늘 나누어 드리는 봉투에 많은 헌금을 바랍니다
 4.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 6시, 저녁미사 7시
 5. 봉헌금(주일금)정신 앙양: 봉헌금을 내실때 앞줄부터 질서있게 나와 봉헌합니다
 6. 주일학교 개학: 오늘 오후 2시 교리, 미사 3시
 7. 금주해설: 안경례, 독서-①김성원 ②유기순
차주전례: 해설-은희영, 독서-①천진 ②송누리
- 지난주 봉헌금: 363, 57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예비자 교리시간: 공식미사 후-성인
목요일 저녁 8시-젊은이, 토요일 오후 5시-중·고생
 3. 80년도 영세자 특별교리: 6일~10일까지
(저녁미사 후 8시)
 4. 81년도 영세자 특별교리: 13일~17일(저녁 8시)
 5. 반장반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자모회 모임: 매월 첫 화요일 오전 10시(금월은 9월 7일), 장소-성당 회합실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박형식 ②함문권
- 지난주 봉헌금: 261, 260원 교무금: 210, 900원

(숲정리)

전화 ⑥7366
수.유 ⑥9567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김수결

1. 사도회 월례회: 5일 공식미사 후
 2. 누깁다 부녀월례회: 4일 구 유치원 교실
 3. 주일학교 아동교리: 주일 아동미사 후,
 4. 숲정리 50호 1권당 4, 000원: 본당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톨릭시보 50부 도착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6.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 아침 5시 30분-6시로, 주일 저녁미사 8시-7시 30분으로, 평일-월·수 아침 6시, 화·목·금·토 7시 30분, 이 밖에는 종전과 같음
 7.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철수
독서-①박대규 ②이동진, 기도-이은자
 8. 미사참례자 안내: 이경희, 권영순, 서숙자, 정금순
김상배, 김상우
- 지난주 봉헌금: 388, 040원

(전동)

신부 ⑥6208
사부 ②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범준
보좌 신부 박병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8시 30분 미사후
 3.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자모회 피정: 7일
 5. 예비자 제1단계 입교예식: 11일 오후 7시
 6. 복자축일 영세자 특별교리: 13일~25일
 7. 중·고생 예비자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8. 주일학교 성지순례: 19일 미리내 용인 자연농원
 9. 주일학교 합창부 성가연습: 매일 6시 30분, 협조바람
 10. 주일학교 개학: 5일 1시 40분
 11.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현재 ②김동연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희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경양주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549, 760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수녀 ②4804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오늘은 선교 200주년을 위한 특별헌금 주일입니다
 2. 꾸리아 회합: 오후 2시, 간부님들 꼭 참석 바랍니다
토사리우 꾸리아의 보고의 달입니다(고미숙에)
 3. 사도회 월례회: 저녁미사 후
 4. 유치원 개원식: 10일
 5. 9월은 복자성월: 복자들과 같은 정신에서 종교활동을 합시다
 6. 19일 오후 2시에 영세식: 레지오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펴서 영세에 입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7. 분당성부님 영명축일: 기도와 예물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228, 390원 교무금: 176, 000원